

웬디스버거 중동지역 공략 가속

두바이지사



| 웬디스 로고 |

웬디스, 중동지역 점포 확장계획 발표

- 중동지역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명목 GDP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. 이러한 호황의 바람을 타고 식음료 공급업체의 매출이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.
- 그 가운데, 미국 패스트푸드체인 웬디스(Wendy's)의 약진을 눈 여겨 볼만 하다. 아랍에미리트연방에서 중산층의 외식비 지출이 늘면서 매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웬디스는 쿠웨이트의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Alghanim Industries를 통해 점포확장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.
- 웬디스(Wendy's)는 Alghanim Industries와 2016년 계약을 맺은 이후, 아랍에미리트 내 두바이몰(Dubai Mall), 나킬몰(Nakheel Mall), 알와다몰(Al Wadha Mall)을 포함 총 4개의 신규점포를 개장했으며, 2018년 4월 현재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17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.
- 쿠웨이트시시에 본사를 둔 Alghanim Industries는 MENA(Middle East and North Africa), 터키, 인도 및 동남아시아 40개국에서 30개가 넘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글로벌그룹이다.
- 미국 햄버거체인 웬디스는 1969년 오하이오주에서 창업했다. 직화로 굽는 정사각형 모양의 패티로 특화되어 있으며, 감자튀김의 인기가 높으며 샐러드류,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 메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.

| 웬디스 아부다비 Hamdan Street매장 내부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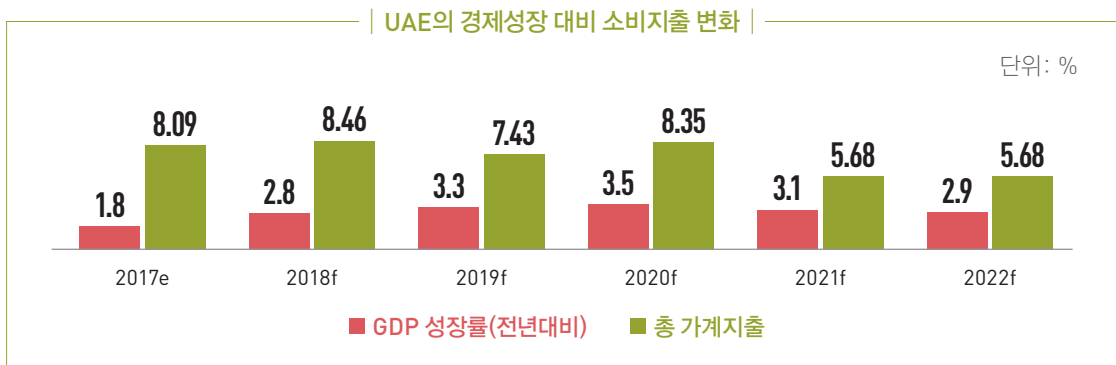
| 웬디스의 Dave's 버거 |



출처 : 웬디스 두바이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Wendysuae)

아랍에미리트의 가계지출 증가로 구매력 확대

- 아랍에미리트의 가계지출 규모는 2017년도 8.1%에서 2018년도 8.5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향후 2년간 GDP 성장률도 2018년에는 2.8%, 2019년에는 3.3%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- 이러한 UAE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지출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, 특히 UAE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서양식 패스트푸드 체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.
- 2018년 UAE 전체 인구의 50%가 20-39세이며, 2022년까지 이들은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비율도 47%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들이 선호하는 서양식 패스트푸드의 성장 잠재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.



출처 : BMI, Company Trend Analysis (2018.3.28), e : 추정치, f : 전망치

GCC 지역 외식산업 증대에 따른 한식 진출 기회

- GCC*(Gulf Cooperation Council) 지역의 높은 젊은인구 비율과 구매력 증대로 외식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외식산업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젊은층의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현지화된 한식 메뉴로 GCC 지역의 한식 프랜차이즈 진출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.

* **GCC국가** :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

출처 : BMI Research : A FitchGroup Company <Fastfood giant eyes middleeast expansion>
<https://www.instagram.com/wendysuae/>
<https://bmo.bmiresearch.com>
<http://www.sedaily.com/NewsView/10C2VJGT8T>